

[일본, 2013년 4월] [농식품]

1. 일본지역, 현장 이슈

▶ 두유 총생산량 사상최고 기록

농림수산물성 발표 12년 두유생산량 조사 결과, 연간 총생산량이 사상 최고량인 25만5905kl를 기록

그 구성을 보면, 무조정두유가 4만4063kl(전년대비 25.7% 증가), 조정두유 14만5140kl(15.5% 증가), 과즙두유음료 1만4038kl(54% 증가), 기타 두유음료 5만0912kl(6.1% 증가)로 과즙두유음료의 생산량이 가장 크게 증가함

두유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요인으로는, 소비자들의 건강과 미용효과 등 두유에 대한 이해가 깊어짐과 과즙두유가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때 두유 초심자나 여성 팬도 늘어난 것으로 보임

일본두유협회는 금후 목표로써 5년 후의 국민 1인당 두유 연간음용소비량을 4L로 정하고 두유에 대한 홍보활동을 계획하고 있으나, 대두 가격의 고등과 엔고 추이가 염려되고 있음

▶ 편의점, 가공식품 판매 증가 추세

2월 가공식품의 판매동향을 보면, 슈퍼(전년대비 3.4% 감소)와 백화점(1.3% 감소)이 감소추세인 한편, 편의점(1.1% 증가)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유지.

▶ 제3국산 제조식품에 대해 수출국 검사증명서 인증제도 도입

최근 일본정부에서는 수입식품의 국제화, 다변화 시대에 맞추어 일본으로 수출되는 상품이 수출국에서 바로 제조되지 않고, 제3국에서 제조되어 한국을 경유 또는 직접 일본으로 수출된 경우에도 수출국 공적검사기관에서 발급받은 시험성적서를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2013.4.1자)

예를들어, 한국의 무역업체가 중국에서 제조한 명란젓을 지금까지는 한국에만 수입 유통해 왔으나, 동일한 제품을 일본에도 수출하고 싶은 경우, 한국내 공적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일본 검역시에도 인정하는 제도임

기존 수출국 공적검사기관 인증제도를 확대 운영하여 시험검사 중복실시를 생략하는 것으로 행정수요 절감 효과가 기대됨

2. 농식품 수입동향 및 전망

□ '13. 2월말까지의 일본 전체 농림수산물 수입액은 1,322,019백만 엔으로 전년 동기대비 6.8% 증가, 수입 1위국은 미국(18.6%), 2위 중국(13.4%), 3위 캐나다(6.7%) 순임

□ 야채

- 2013년 2월의 야채 수입량은 전년동월비 89%인 198,231톤으로, 유형별로 보면 「신선 야채」는 72%인 71,720톤, 「냉동 야채」는 97%인 60,064톤, 「염장 등 야채」는 115%인 8,136톤, 「건조 야채」는 94%인 2,892톤, 「식초 조제야채」는 98%인 2,482톤, 「토마토 가공품」은 118%인 20,426톤, 「기타 조제야채」는 105%인 31,098톤, 「기타」는 101%인 1,413톤으로 나타남. 염장 야채, 토마토 가공품, 기타 조제야채 및 기타 야채는 전년을 웃돌았으나 신선야채, 냉동야채, 건조야채 및 식초 조제야채는 전년을 밑돌고 있어 수입량 전체로는 전년에 비해 하락 추세

□ 신선야채

- 신선야채 71,720톤 중 수입량이 증가한 주요 품목은 토마토가 전년동월비 142%인 452톤, 방울양배추가 1,492%인 14톤, 멜론이 324%인 3,214톤, 수박이 334%인 40톤, 결구양상추가 135%인 2,847톤으로 나타남
- 한국산 신선야채 수입량은 전년동월비 41%인 1,326톤으로 주요 품목은 파프리카 958톤, 토마토 190톤, 결구 양배추 90톤, 기타 버섯류 37톤, 기타 고추 등 35톤, 멜론 8톤, 딸기 7톤, 냉동야채가 전년동월비 8%인 2톤임

□ 계육조제품

- 전체 계육조제품은 전년대비 15.6% 증가, 한국산 삼계탕은 전년대비 약 43% 감소한 127백만엔으로 나타남

□ 알콜음료

- 전체 알콜음료는 전년대비 20.1% 증가, 한국산은 전년대비 9.0% 감소한, 256백만엔으로 나타남

□ 멜론

- 전체 멜론은 전년대비 104.9% 증가, 한국산은 전년대비 50.0% 감소한, 7백만엔으로 나타남.
- 아루스 멜론은 중유가격의 인상과 생육기간의 일기불순으로 인한 공급부족으로 시세가 오르고 있음

□ 인스턴트 커피

- 전체 인스턴트 커피는 전년대비 16.8% 증가, 브라질산이 반 이상으로 감소하여 337백만엔, 콜롬비아산이 50% 증가하여 340백만엔, 한국산이 3위로 388백만엔으로 나타남

□ 가공식품

- 가공식품 수입량은 전년동월대비 1.8% 상승하였고, 주류를 제외한 가공식품은 4.1% 상승. 분류별로 보면, 당류가 대폭 상승하고 축산가공품, 곡물가공품, 기타 조제 식료품이 소폭 상승한 한편, 음료와 주류는 크게 감소, 농산가공품은 소폭으로 감소
- 수입 금액은 1,180억엔으로 전년동월대비 14.6%으로 큰폭으로 증가. 주류를 제외한 가공식품은 1,031억엔으로 전년동월대비 17.5%로 대폭 증가함. 분류별로는 축산가공품, 수산가공품, 농산가공품, 곡물가공품, 당류, 과자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조미료와 기타 조제식료품은 대폭 증가함. 한편, 음료와 주류가 소폭으로 감소

<품목 수입통계(누계기준)>

(단위:백만엔,%)

품목	2012년 한국수입	2012년 1~2월	2013년 1~2월	전년대비 (%)	1위		2위		3위	
					국가	금액	국가	금액	국가	금액
농식품전체	191,159	1,237,933	1,322,020	6.8	미국	246,371	중국	176,943	캐나다	89,026
멜론(신선)	240	260	534	104.9	멕시코	525	한국	7	오만	2
밤	2,696	156	202	29.0	중국	188	한국	13	-	-
딸기(신선)	240	25	18	△29.9	한국	11	미국	7	-	-
토마토	738	190	379	99.4	미국	155	한국	131	뉴질랜드	53
결구양배추	187	324	287	△11.6	중국	269	한국	10	대만	8
오이	1.5	-	0.3	-	한국	0.3	-	-	-	-
가지	21	-	0.2	-	한국	0.2	-	-	-	-

기타버섯	106	25	30	22.5	한국	20	프랑스	6	중국	4
고추·피망속	7,586	2,102	2,153	2.4	한국	1,267	뉴질랜드	870	오만	16
파프리카	7,235	2,024	2,084	3.0	한국	1,198	뉴질랜드	870	오만	16
계육조제품	885	24,975	28,883	15.6	태국	15,394	중국	13,199	한국	127
추잉껌	54	9	11	23.0	한국	6	중국	2	태국	1
코코아조제품	328	390	398	2.1	싱가포르	241	한국	102	말레이시아	32
인스턴트커피	1,000	1,430	1,670	16.8	한국	388	콜롬비아	340	브라질	337
알콜음료	27,058	27,570	29,873	8.3	프랑스	10,088	한국	3,256	미국	3,138
곤약	105	482	490	1.7	중국	444	인도네시아	29	한국	16
원료인삼	169	150	342	128.7	중국	291	한국	39	대만	11

자료원 : 일본농림수산물성 통계정보

3. 타국산 경합품목 동향

□ 멜론

- 전체 수입액은 전년대비 104.9% 대폭 증가한 534백만엔. 한국산은 전년대비 50% 감소한 7백만엔으로 나타남. 수입국 1위인 멕시코산은 124% 증가한 525백만엔임. 수입산 증가의 배경은 일본산의 연료비 상승과 일기불순으로 인한 국내산 물량 부족의 영향임

□ 밤

- 전체 수입액은 29.0% 증가한 202백만엔. 한국산은 전년대비 225%로 대폭 증가한 13백만엔으로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음. 수입국 1위인 중국산은 23.6% 증가한 188백만엔임. 외국산 수입이 대폭 늘어나고 있는 것은 일본의 주산지가 방사능오염으로 소비자가 일본산의 안전성을 우려하기 때문임

□ 딸기

- 전체 수입액은 전년대비 29.9% 감소한 18백만엔. 전체시장의 61%를 차지하는 한국산 딸기도 전년대비 31% 감소한 11백만엔임. 2위 미국은 21.5% 감소한 7백만엔으로 전체 수입량의 39%를 차지함

□ 토마토

- 전체 수입액은 전년대비 99.4% 대폭 증가한 379백만엔. 한국산 토마토는 전년대비 44% 증가한 131백만엔으로 나타남. 수입국 1위의 미국산은 252% 증가한 155백만 엔임. 수입산이 늘어난 것은 일본의 작황이 좋지 못한 점과 소비자의 원전사고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임

4. 동향 분석 [제3맥주]

□ 시장규모

- 제3맥주는 맥주용 발포 알콜음료를 칭하는 신장르로, 일본 주세법상 「리큐르(발포성)」 「기타 양조주(발포성)」로 분류됨. 12년 일본산 제3맥주의 전체 시장규모는 전년대비 100.4%인 5,035억 엔으로 전망
- 최근 일본산 신제품은 리큐르(발포성)로 분류되는 상품이 대부분으로 대일수출용 한국산 상품도 리큐르(발포성)가 대부분임

□ 유통동향

- 소비자의 가장 큰 상품 구매요소는 가격으로 양판점이나 주류전문판매점에서는 산토리주류의 긴 무기를 중심으로 가격공세가 강함
- 한국산은 2010년 이온그룹이 한국산 PB상품을 도입하고 판매량이 대폭 증가하면서 제3맥주 시장이 주목받기 시작함

< 제3맥주 대표 상품 >

한국산 (80~100엔)			
	이온PB 「Barreal」 메이커 : OB	카오스루드 「Prime Draft」 메이커 : 하이트진로	OGC PB 「Gent Plus」 메이커 : 하이트진로
일본산 (100~130엔)			
	기린 「진한 시간」	산토리 「간무기」	아사히 「블루라벨」

□ 수입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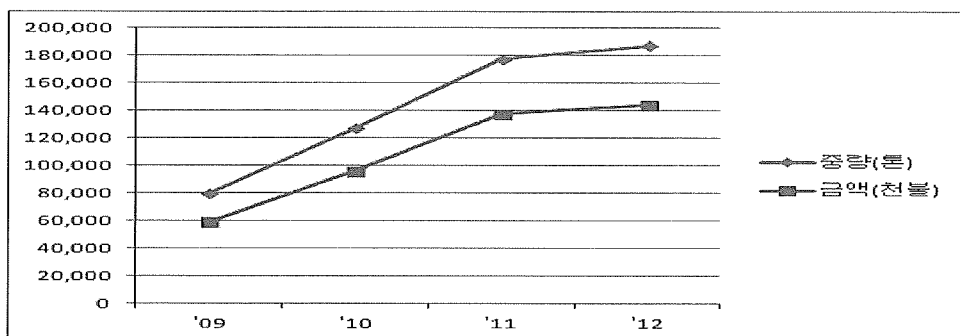
- 한국산 제3맥주는 PB상품으로 수입되는 것이 대부분으로, 12년 수입실적을 보면 물량이 5.2% 증가한 186,977톤, 금액으로는 4.8% 증가한 144,030천불로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한국산 제3맥주 일본 수출실적 >

(단위: 톤, US 천불, %)

2011년		2012년		증감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177,751	137,472	186,977	144,030	5.2	4.8

< 한국산 제3맥주 일본 수출 추이 >



□ 한국산 수입 증가사유

- 한국산 맥주는 현재 무세로 수입되고 있어 100엔 이하라는 가격이 큰 무기가 되고 있으며, 가격 대비의 품질도 인정을 받고 있음

□ 시사점

- 저가격 노선의 한국산 맥주계음료로 「논알콜」 「칼로리 제로」라는 키워드 상품을 전개하기 시작 하였으나, 일본 메이커의 신장르 및 신기술 개발을 뒤쫓는 구조라고 할 수 있음
- 맥주는 주류 장르에 국한되지 않고 논알콜음료에까지 진출하게 되어 기존 「드링크 시장」 과도 경합하게 되는 상황으로, 맥주시장 전체로는 감소추이를 보이지만, 소비동향 등을 고려할 때 제3맥주의 확대 가능성은 긍정적임
- 일본산 제3맥주는 상품의 개발과 폐지가 빨라 맥주에 비해 브랜드 육성이 어려운 상황으로 만약 일본산 맥주의 세율이 내리고 제3맥주의 세율이 오를 경우, 수요가 대폭 감소할 가능성도 우려됨
- 저가격을 무기로 한국산 제3맥주류가 유통 PB상품으로 시장확대에 공헌하여 왔으나, 유럽산 고가 격대 맥주의 판매도 증가하고 있음. 소비자의 기호가 다양화하는 가운데 개성 있는 프리미엄 맥주를 찾는 소비니즈도 늘어나고 있어 앞으로는 수입맥주시장의 양극화가 확대될 전망